

부산상공회의

Story for 부산CEO

Show

2023. 05 Vol. 614



Contents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AGAZINE 2023 vol. 614

발행일 2023년 5월 2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활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디자인·제작 (주)프린테크 051-301-3113
표지디자인 메이플디자인 051-257-0302



BCCI Special

04 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초청
제251차 부산경제포럼



부산상공회의소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CEO 취향저격

- 06** 부산의 대전환을 찾아서
부산 속의 일본, 동아시아 물류허브 '왜관'
- 10** 해외 여행지 추천
오감이 즐거운 도시로 떠나는 가족여행 '홍콩'
- 14** 메시지 인 시네마
CEO를 위한 리더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영화
- 예비에이터
- 위플래쉬
- 18** CEO 단골 맛집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국수 맛집 두구동 '가미국수'
- 20** 가족의 인문학
아버지를 닮아간다 - 김진호의 <가족사진>

ZOOM in BCCI

- 22** STORY OF 캡틴장
- 24** Together with 2030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부산 방문!
그 현장 속으로!
- 26** 기업포커스
(주)경부공영
- 30** Look at Me
스타트업 '쥬코아이'

트렌드 TALK

34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소비하는
체리슈머(Cherry-Sumer)

경제 트렌드

- 36** 경제키워드
- MZ세대 관리와 육성
-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 UAM
- 40**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 42** 부산경제계 이모저모
- 46** 멤버스 라운지
-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 일자리 지원사업

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초청 제251차 부산경제포럼



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초청 부산경제포럼 기념촬영

장인화 회장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관심 높은 지역기업인들 위해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특강 요청

부산상공회의소는 4월 12일(수) 오전 7시, 롯데호텔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을 초청하여 “한국경제의 오늘과 부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251차 부산경제 포럼을 개최했다.

부산경제포럼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상공회의소가 1996년 5월 창립한 이후 27년간 기업인들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조찬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평소 강석훈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장인화 회장이 본사 이전 문제로 KDB산업은행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지역 기업인들을 상대로 특강을 요청하면서 성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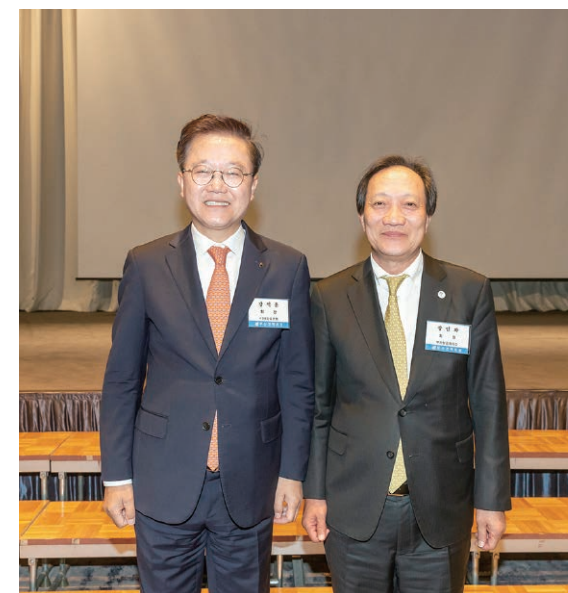


1 2 부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강석훈 회장

부산의 3대 미래상으로 디지털산업도시, 해양물류허브도시, 금융혁신도시 제시

강연을 통해 강석훈 회장은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 재도약의 해법으로 수도권과 동남권의 양대 축을 연결하는 국가 지속 성장의 모멘텀 확보를 제시하였다. 부산은 디지털산업도시, 해양물류허브도시, 금융혁신도시 등 3개의 미래상을 구축해야 하며, 각각의 벤치마크 대상으로 IT와 창업 중심 도시로 전환한 시애틀과 아시아 항만·물류허브 싱가포르 그리고 디지털 기술 및 해양금융 기반 특화 금융 중심지로 도약한 런던을 제시하였다.

부산의 2050년 대도약을 위한 빅 드림 달성에 있어 ‘국가 지속발전을 위한 지역성장’을 3대 코어 비즈니스 중 하나로 설정한 산업은행은 ▲유망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생태계조성 ▲지역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해양산업 성장동력 확충 ▲정책금융 활용한 디지털금융 및 해양금융 지원 등 지역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산업은행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장인화 회장과 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기념촬영



본 강연 전 지역 스타트업의 소개를 듣고 있는 장인화 회장, 강석훈 회장, 반대인 회장

강석훈 회장은 강연 후 질의응답을 통해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 아래 추진하고 있다”면서, 본사 이전이 산업은행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논란 속에 이전이 아니라, 축복 속에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지역 최대현안 중 하나인 산업은행 본사 이전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오늘 강연을 통해 부산의 미래를 위한 산업은행의 역할을 확인한 만큼 부산상회가 지역경제계의 여론을 잘 취합하여 산업은행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왜관

동아시아 물류허브
부산 속의 일본

글사진_ 손민수
부산여행특공대 대표 이바구스트

왜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왜관(倭館)은 일본 이외의 나라에 있었던 유일한 일본인 마을이자 교역과 숙박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조선은 고려의 멸망이 왜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건국초기부터 화전양면(和戰兩面) 정책을 써왔다. 그런 결과 1407년 부산포와 제포(진해)에 왜관이 열렸다. 왜관이 정식으로 열리자 왜관에 정착하는 일본인들의 수도 매년 늘어났다. 두 곳의 왜관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엽포(울산)와 가배량(통영)에도 추가로 왜관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같은 평화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왜구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심지어 1419년에는 비인현(庇仁縣-현 충남서천군)에 왜선 50여척



1



2

- 1 변박의 왜관도 초량왜관 전경(1783년)(출처_국립중앙박물관)
- 2 왜관을 오고간 부산 사람들
- 3 부산포왜관 터 기념석



3

이 침략하여 4곳의 왜관을 모두 폐쇄했고, 그해 6월 이종무는 대마도를 정벌했다. 1423년 대마도주의 간청으로 부산포와 제포에 다시 왜관을 개설하고 이후 엽포에도 왜관을 열어 주었으나 '삼포왜란'으로 다시 왜관들을 폐쇄하는 등 회유책과 강경책으로 개폐관을 계속하였다. 1544년 4월 왜구가 사랑진(蛇梁鎭-현 통영 사랑면)을 침략한 일명 사랑진왜변이 발생하자 모든 왜관을 폐쇄하고 일본 국왕의 사신만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다.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삼포왜란에 비해 사랑진왜변의 피해는 미비해 보였지만 왜구에 대한 경각심은 고조되었다. 결국 가덕진과 천성진이라는 수군의 진영이 가덕도에 설치되고 대마도 등에서 넘어오는 왜구들에 대한 경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명종 즉위 이후인 1547년에는 일본과 정미약조(丁未約條)가 체결된다. 도해를 허용하는 무역선 및 사절단의 수, 사절단에 지급하는 곡물의 양을 규정한 약조인 듯 보이지만 '가덕도 서쪽으로 와서 정박하는 자는 적왜(敵倭)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가덕도 서쪽, 즉 전라도 쪽으로 이동하는 일본인은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약조였다. 그렇게 가덕도 서쪽의 제포왜관은 폐쇄되고 1872년까지 부산포만 왜관이 존재하는 부산 단일왜관시대가 시작된다.

부산 단일왜관 시대의 시작

1547년은 부산 단일왜관 시대가 시작된 시기이며 이로 인해 부산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가 된다. 1547년 이전까지 부산, 당시 동래는 종5품의 현령(縣令)이 다스리는 현(縣)이었지만 조선에서 유일하게 왜관이 존재하는, 일본사절을 응대해야 하는 유일한 지역이 됨으로서 부(府)로 승격되었고 종3품 도호부사(都護府使), 즉 동래부사가 다스리는 동래부가 되었다. 1547년부터 부산은 한반도에서 조선과 일본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조선의 중심으로 향하는 시작점, 외국인이 마을을 이루고 거주하는 한반도 유일의 국제적 공간이 된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으로 부산포왜관은 다시 폐관된다. 부산도 방비의 책임을 물어 현으로 다시 강등되었다. 물론 1599년 임진왜란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부(府)를 회복하였지만 임진왜란 최초의 상륙지, 왜군의 진격루트도 부산포왜관으로부터 한양으로 상경했던 일본 사신의 상경로였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부산포왜관을 원인으로 봤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은 꾸준히 화친을 요구했다.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은 불구대천의 원수였지만 재침략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며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속에서 두 나라가 국교회복을 해야



1 조선통신사 행렬도(출처_대영 박물관 소장)
2 초량왜관

할 현실적인 이유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결국 대마도주와 도쿠가와이에야스의 새로운 막부 사이에서, 조선이 제시한 조건들을 두고 일부 명분에 부합하는 선에서 조선은 결단을 내렸다. 그렇게 새로운 ‘한일 교류의 시대’, ‘동아시아 물류 허브’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본격적인 교류협력의 시대

정식국교가 회복되기 전이었지만 1601년경 절영도에는 이미 왜관이 열렸다. 조선상인들이 몰려들면서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사절들이 오가면서 1603년에는 공식적으로 무역이 허가되었다. 이윽고 1607년 국교가 재개되고 회담검쇄환사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떠났고 1811년까지 이어진 12차례의 조선통신사는 한일교류의 선봉이자 양국의 평화와 선린우호의 중요한 메신저가 되었다. 1607년까지 절영도에 가왜관(假倭館)형태로 존재했던 왜관의 역사는 동구 수정시장일대 두모포로 옮기며 두모포왜관(1609-1677)으로 이어졌고, 일본의 끊임없는 요구로 1678년에는 용두산아래 11만평의 부지로 옮긴, 초량왜관이 1872년 일제에 의해 무력 점거되어 ‘대일본국공관’이 되기전까지는

초량왜관으로 이어졌다. 참고로 초량왜관을 기점으로 옛날 왜관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고관(古館)이라는 지명이 초량에 존재한다.

1876년 일제에 의한 강제개항으로 200년 가까이 일본인 마을이자 초량왜관이 있던 공간(현 동광동 광복동일대)은 ‘부산 일본제국 전관거류지’라는 이름의 개항장이 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근대 도시 부산이 태동했다. 안타깝게도 ‘근대 도시 부산’이 시작된 왜관이라는 공간은 평화와 우호의 공간에서 일제의 야욕으로 강제적 근대화·도시화가 진행되는 공간, 지배와 수탈의 시작점으로 변질되었다.

3 1872년 부산진지도(출처_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 1876년 부산항의 개항 당시 부산의 일본공관(출처_국립중앙박물관)



한일 교류의 공간 북향, 2030년에는 전 세계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1407년 부산포개항과 함께 500여년 동안 부산에서 지속된 왜관의 역사는 부산역사의 일부이자 부산항의 역사이며 평화와 우호적 한일교류의 중요한 역사이다. 초량왜관 밖에서는 매일아침 조시(朝市)가 열렸고 왜관 내에서는 매일 6차례 무역이 가능한 개시(開市)가 열렸는데, 개시가 열리면 상주 일본인, 조일 상인과 관계인, 그리고 동래부의 관원 및 가족까지 도합 약 3,000여명이 모였다고 한다. 왜관은 외교·경제·문화·풍속·정보 등 다양한 교류의 공간이었고 공무역으로는 물소뿔·후추·백반·소목 같은 동남아시아 제품들이, 사무역으로는 고급 중국비단과 일본 은이 거래되는 국제 시장이자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가 만나는 동아시아 물류 허브였다. 부산속 왜관은 우리 부산이, 조선이 세계로 향하고 세계가 부산으로, 조선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관문이었다. 좁게는 한일교류가, 넓게는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던 중요한 공간이었다. 물론 왜관이 조선의 기밀이 유출되고 다양한 폐단이 발생하고 왜변과 전란 그리고 조선 식민지화를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음도 부정하지 않는다. 한일관계에 명과 암이 존재하듯 왜관이라는 공간에도 명과 암이 존재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부산 속 왜관이 명과 암의 중심에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보다 더 눈을 뜨게 하고 부산이라는 공간을 세계에 알리고 동아시아물류가 교차했던 교차점이자 부산 대전환점의 공간이 되어주었음도 인정했으면 한다.



초량왜관 위치 안내도

그 옛날 부산속 왜관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만나고 주고 받은, 평화의 미소와 약속의 기억들이 북향에 씨앗이 되길 바란다. 2030년, 씨앗이 자라고 자라 한때 왜관이 존재했던 북향에서 부산세계박람회로 꽃이 피고 한국인과 세계인의 만남으로 열매를 맺어주길 간절히 기원한다.

5 초량왜관 최고 책임자가 살았던 관수가의 계단이 남아있는 모습
6 초량왜관 터 기념석



초량 왜관

오감이 즐거운 도시로 떠나는 가족여행

홍콩

글_사진_ 문철진 여행작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는 요즘, 해외 여러 도시들도 속속 코로나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주말 밤도깨비 여행지로 사랑받았던 홍콩 역시 3월부터 관광객들에게 문을 열면서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은 ‘백만 불짜리 야경’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화려한 야경의 도시이자 수많은 미술관 레스토랑이 곳곳에 숨어 있는 미식의 도시다. 여기에 홍콩 특유의 레트로한 감성이 더해져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많은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에서 비행기로 3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곳이라 주말을 이용해 훌쩍 다녀오기도 좋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홍콩 여행지를 소개한다.



빅토리아 피크 전망대

홍콩에서 딱 한 곳만 갈 수 있다면 빅토리아 피크 전망대가 정답이다. 백만 불짜리 야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홍콩 최고의 전망대이기 때문이다. 홍콩섬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 홍콩섬은 물론이고 카우룽반도까지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빅토리아 피크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가지 인데, 가장 빠르고 편안한 방법은 피크 트램이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30여 년 전인 1888년에 완공된 아시아 최초의 케이블 카로 단 9분 만에 우리를 빅토리아 피크로 옮겨 놓는다. 피크 트램에서 내리면 바로 피크 타워다. 꼭대기 층의 옥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홍콩야경은 그야말로 백만 불짜리. 인파가 물리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자리를 잡는 것이 좋다. 피크타워 내에 있는 레스토랑 ‘부바검프’에선 다양한 새우요리와 함께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밀랍인형 박물관인 ‘마담투소’에서 신나게 사진 놀이를 즐겨봐도 좋다.



1 2 3 빅토리아 피크 전망대





1 2 3 몽콕의 재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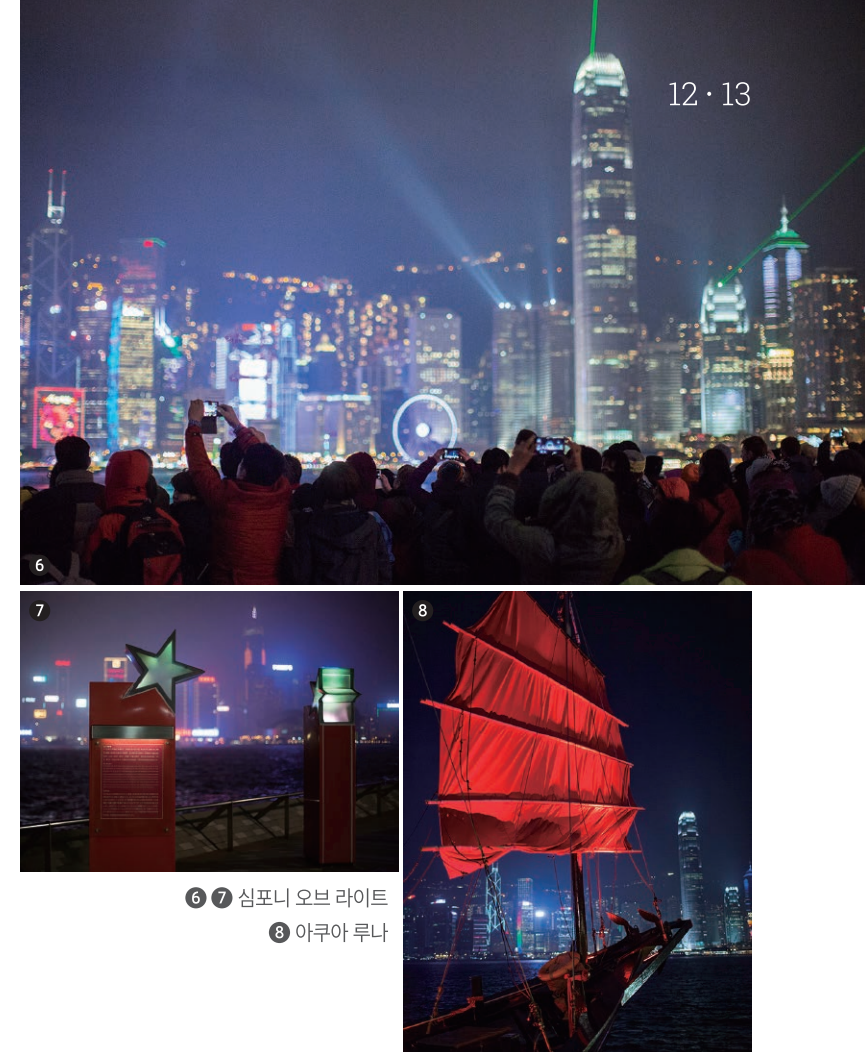
몽콕의 재래시장

지하철 몽콕역 주변은 온통 시장으로 가득하다. 화려한 고층빌딩 뒤에 가려진 진짜 홍콩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전자제품 거리를 시작으로 옷과 가방, 신발 등 온갖 물건을 다 파는 ‘레이디스 마켓’, 운동화 가게들이 모여 있는 ‘운동화 거리’ 그리고 ‘금붕어 마켓’까지 한나절을 둘러봐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재미있는 시장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이들 시장이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거리라면 그 끝에 있는 ‘파운 스트리트’는 홍콩 본연의 재래시장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곳이다. 거리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은 노점 뒤에도 오래된 가게들이 즐비하다. 로컬 피플들이 물건을 사고 흥정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몽콕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 ‘기취병가’는 찹쌀 호떡이 명물이다. 홍콩의 옛 극장을 그대로 재현한 ‘스타벅스’ 콘셉트 스토어도 놓칠 수 없는 명소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

매일 밤 8시, 빅토리아 하버에서 펼쳐지는 ‘심포니 오브 라이트’는 홍콩 야경의 핵심이다. 홍콩섬의 초고층 빌딩들이 음악에 맞춰 레이저 불빛을 쏘며 빛의 축제를 벌이는 모습은 홍콩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상설 라이트 & 사운드 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빅토리아 피크 전망대에서 보던 것과 달리 빅토리아 하버에서 보는 야경은 바다가 있어서 더욱 로맨틱하다. 침사추이 시계탑 옆 문화예술센터 앞 테라스가 심포니 오브 라이트 감상의 성지다. 더욱 특별한 홍콩의 밤을 만나고 싶다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자. 홍콩의 전통 범선을 본떠 만든 ‘아쿠아 루나’는 심포니 오브 라이트가 펼쳐지는 동안 바다에서 황홀한 홍콩의 밤을 만끽하게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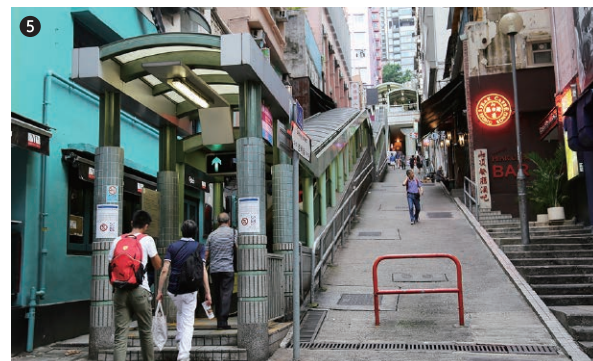


6 7 심포니 오브 라이트
8 아쿠아 루나



소호에서 미식 탐방

홍콩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소호로 가자. 홍콩에서 가장 트렌디한 거리인 소호는 미술랭 레스토랑을 필두로 홍콩의 맛을 뽐내는 가게들이 골목마다 즐비하다. 걸다가 아무 가게나 들어가도 웬만해선 실망하지 않는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세련된 음악이 미각을 극대화하는 경험이 소호에선 흔하다. 홍콩 최고의 에그타르트 전문점으로 손꼽히는 ‘타이칭 베이커리’와 부드럽고 진한 밀크티를 맛볼 수 있는 ‘란풍유엔’, 토마토 라면으로 유명한 ‘싱홍유엔’ 등은 소호에서 놓칠 수 없는 필수 코스다. 20개의 에스컬레이터와 3개의 무빙워크로 이뤄진 힐사이드 에스컬레이터는 소호의 명물이다. 근처 주택가 이름을 따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로도 불린다. 주민들을 위한 교통 수단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관광 명소로 유명세를 타며 영화나 광고의 배경으로 수없이 등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로 기네스북에 이름도 올랐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끝까지 올라가서 골목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며 소호를 구경하는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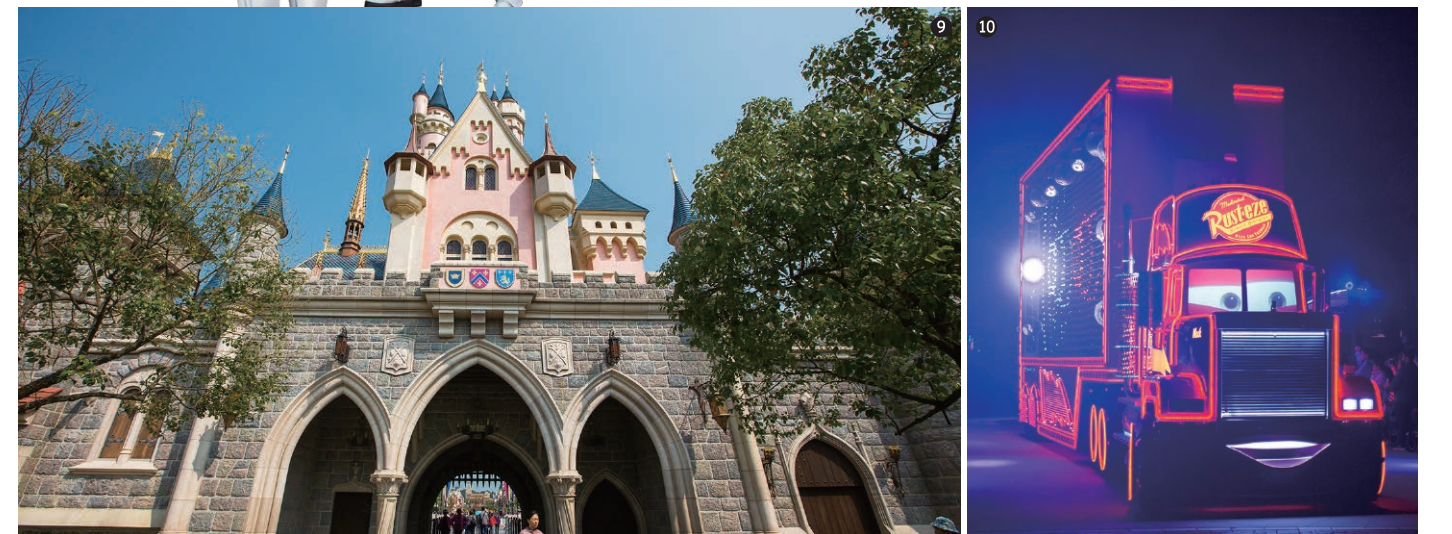


4 미식 탐방하기 좋은 소호의 음식점들
5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홍콩 디즈니랜드

2005년에 문을 연 홍콩 디즈니랜드는 가족 여행의 필수 코스다. 어린아이가 있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디즈니로 달려가자.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들은 투자해야 하는 다른 디즈니랜드와 달리 하루면 충분하다. 규모는 작아도 디즈니 퍼레이드와 불꽃 쇼까지 알차게 즐길 수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갈 경우 서니 베이역에서 내려 디즈니랜드 전용 라인으로 갈아타면 된다. 🚆



9 10 홍콩 디즈니랜드

CEO를 위한

리더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영화

글_ 김은정 영화평론가·영화의전당 시네마스트

MZ세대의 등장, 지속되는 경제 위기, 끊임없이 요구되는 혁신 앞에 선 리더의 어깨가 더욱 무거운 시대다. 어느 순간에는 과감한 결단, 또 다른 순간에는 구성원을 독려하는 노하우가 요구된다. 이번 호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극단으로 치달은 리더를 그린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한다. 어쩌면 속이 시원할 수도 있고, 한편으론 리더의 중용에 대해 고민하게 되기도 한다.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



Movie Info

개봉 2005.02.18. 국가 미국, 일본, 독일
 등급 15세 관람가 러닝타임 169분
 장르 드라마, 모험, 멜로/로맨스
 사진출처: 코리아픽처스

01

에비에이터 과감한 모험가와 괴짜 사이 어디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 <에비에이터>(The Aviator, 2004)의 주인공 하워드 휴즈는 이 대사와 함께 등장한다. 그리고 이 말은 그의 기업가정신의 핵심이다. 인습을 거부하는 도전, 모험, 그리고 자유로운 발상이 곧 그다. <에비에이터>에서 주연을 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실존 인물 하워드 휴즈(Howard Hughes, 1905-1976)의 전기를 읽고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이 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실존 인물 하워드 휴즈는 부모의 사망으로 19세에 거액의 유산과 건설장비회사를 물려받아 억만장자가 되었다. 소위 금수저다. 그러나 그는 상속받은 재산과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여러 분야에 뛰어들었다. 석유 탐사와 광산업, 항공업과 무기 개발, 영화 제작, 라스베이거스를 개발하고 수많은 호텔을 소유한 부동산업에 이르기까지 온갖 산업 분야에서 경이로운 도전과 성공을 이어간다. 그는 경영인이자 공학자, 비행사, 영화감독이자 제작자였다. <에비에이터>는 과감한 모험가와 괴짜 투자자라는 상이한 평가를 동시에 받던 192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후반까지의 전성기의 하워드 휴즈를 그린 영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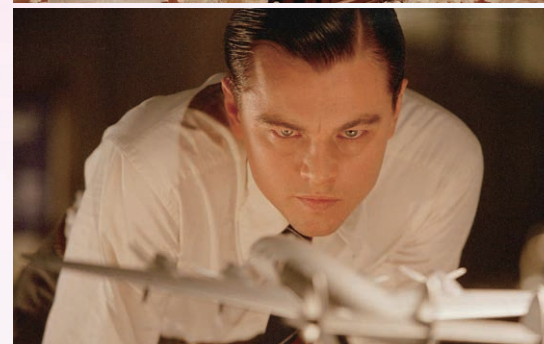
다시, 다시, 또다시

<에비에이터>는 하워드 휴즈가 제작하고 연출한 영화 <지옥의 천사들>의 촬영 현장에서 시작한다. 이곳은 마치 실제 전쟁터 처럼 보인다. 수십 대의 헬기가 고공낙하와 공중회전을 하고, 이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동원된다. 헬기를 잘 보여주기 위해 하늘에 구름이 필요하다면 구름 생성을 예측할 기상학자를 고용하고, 구름을 기다리기 위해 몇 달의 제작 기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그렇게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해 영화를 완성했지만, 할리우드에 유성영화가 도래하자 유성으로의 재촬영을 감행한다. 다시, 또다시. 당시 200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되었을 때 미국의 전 국민이 관람해도 수익이 날 수 없다고 예측되었는데, 휴즈는 무려 380만 달러를 들여 <지옥의 천사들>을 완성한다. 그 결과 이 영화는 이전까지 상상할 수 없던 스펙터클한 영상으로 할리우드 영화사에 방점을 찍는다. 항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헬기의 속력을 높이기 위해 공기저항을 줄이는 디자인과 기체 제작을 끝없이 반복한다. 다시, 또다시. 필요하다면 항공사도 인수해 버린다. 결국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헬기, 5층 빌딩 높이의 거대 항공기, 수륙양용 비행기 등 미국 항공 역사를 새로 쓴 개척자가 된다. <에비에이터>는 주변의 만류와 반복된 실패에도 계속 도전하고 끝내 상상했던 것들을 실현해 내는 전성기의 휴즈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무모함 또는 개척자

<에비에이터>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항공기의 시험비행을 직접 하는 휴즈를 여러 차례 보여준다. 그는 무모한가. 아니다. 어쩌면 그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미국의 사회 변화 시류를 읽은 사람일지 모른다. 그가 무모해 보일 정도로 투자한 사업들, 이를테면 영화, 항공업, 방산업 등은 위험성은 높지만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무엇보다 미국이 세계 일류 국가이길 바랐던 당대 미국인들이 열망하던 사업이었다. 시범 비행으로 여러 번 사고를 당하고, 정치인과 경쟁사가 그의 행보를 방해하고, 세균공포증과 신경쇠약, 고독, 불안, 망상도 겪는다. 그러나 영화는 마지막까지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그를 보여준다. <에비에이터>는 새로운 하늘을 개척하는 비행사, 그런 리더를 보여주고 있다.



02

위플래쉬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폭군형 리더

최고의 기회

여기, 거의 폭군 같은 리더가 있다. <위플래쉬>(Whiplash, 2015)는 뉴욕의 명문 음악학교를 배경으로, 명성 높은 '스튜디오 밴드'를 이끄는 지휘자 플레처 교수와 밴드의 드럼 연주자로 들어가게 된 신입생 앤드류의 광적인 노력과 연주를 그린 영화다. 플레처는 우연히 홀로 연습하던 앤드류의 드럼 연주를 들은 뒤, 그를 자신의 밴드로 영입한다. 교내의 B급 밴드에서, 메인 드럼 연주자도 아닌 드럼 보조였던 앤드류는 플레처의 제안에 가슴이 뛰다. 플레처 교수가 이끄는 밴드의 단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주목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스튜디오 밴드의 연습 첫날, 앤드류는 밴드를 완전히 압도하는 플레처의 카리스마와 그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에도 집중하며 긴장한 밴드 연주자들을 보고 당황한다. 그들은 왜 이토록 긴장하고 경직되어있는 것인가. 처음 연습하러 온 앤드류에게 플레처는 부드러운 말투로 조언한다. “어떤 곡을 만나든, 누가 뭐라든 신경 쓰지 마. 네겐 꿈이 있잖아”라고 말이다. 그러나 곧 합주 연습이 시작되자 앤드류의 머리 위로 플레처가 던진 의자가 날아온다.

한계까지 몰아세우다.

플레처의 방식은 영화의 제목처럼 채찍질하며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수치심을 느끼도록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욕설과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며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실력이 형편없다며 폄하하고, 경쟁자와 계속 비교하고, 제대로 연주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을 고수한다. 폭군 같은 그의 방식을 견디지 못하면 밴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앤드류는 처음 경험하는 플레처의 이런 압박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그러자 플레처는 그 눈물마저 계집에 같다며 몰아세운다. 첫 연습이 끝난 뒤, 치욕과 분노의 감정을 느낀 앤드류는 이를 악물고 연습한다. 그의 연습은 새벽까지 이어지고, 드럼 스틱을 왼 손에서는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뚝뚝 떨어진다.



Movie Info

개봉 2015.03.12.	국가 미국
등급 15세 관람가	러닝타임 106분
장르 드라마	
사진출처: 워너홀컴퍼니㈜	



빨라지는 비트와 뛰는 심장

플레처의 압박, 앤드류의 긴장은 연주 장면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된다. <위플래쉬>의 재즈밴드 연주, 특히 드럼 연주는 관객을 매료시킨다. 마치 액션영화의 피 튀기는 액션 장면이나 공포영화에서 악마가 다가오는 장면을 볼 때 느껴지는 살얼음을 걷는 듯한 긴장이 재즈 연주 장면에서 펼쳐진다. 앤드류가 연주하는 드럼의 비트가 빨라질수록 당신은 숨을 죽이고 인물의 감정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앤드류의 실력을 만들었는지, 무엇이 앤드류의 정신을 갇아먹었는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

Good Job,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말

이후 앤드류는 스튜디오 밴드의 메인 드럼 연주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유명 경연 대회에 출전해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드럼 연습에 매진한다. 아버지도 만나지 않고, 여자친구와는 헤어진다. 그러나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플레처의 지도 방식에 그의 신경은 갈수록 예민해지고, 매우 빠르고 어려운 연주를 완벽하게 해내려는 그의 집념은 점차 광기로 변해간다. “Good Job(그 정도면 잘했어)” 플레처는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고 해로운 말이라고 단언한다. 격려와 응원을 위해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정도에 안주하게 된다. 한계를 넘어서는 집념과 투지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곳 차이가 그저 그런 평범한 연주자와 일류 예술가를 가르는 혹독한 세계에서, 어쩌면 플레처의 생각과 방식이 옳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공감이 결여된 극단적 동기 부여형 리더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국수 맛집 두구동 '가미국수'



가미국수 가게전경

금정구 두구동 스포원파크 인근에 위치한 가미국수는 날씨 좋은 요즘 금정구 일대의 푸른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맛있는 한끼를 먹으러 가기 좋은 맛집이다.



가미국수 가게 외부좌석

가미국수를 시작한 지도 벌써 15년

2008년 2월에 가미국수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권숙희 사장님은 농사를 짓는 집안 어른들과 새참으로 국수를 자주 요리해 먹으면서 국수 요리의 노하우를 쌓았다고 한다. 국수를 요리하면 먹는 사람들이 늘 맛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게를 차릴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가미국수는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다.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잔치국수

가미국수의 잔치국수는 먹는 사람에게 꾸밈없이 깔끔하고 깊은 맛을 선사한다. 국수 위에는 애호박과 당근, 김 등 고명을 올려 맛을 더하며, 양념장과 청양고추를 곁들이면 얼큰하게도 먹을 수 있다. 권숙희 사장님은 맛의 비결로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꼽는다. 가미국수는 모든 재료를 국내산 재료를 쓰며, 특히 육수를 내는 멸치는 자갈치 시장에서 따로 공수해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잔치국수와 함께 먹는 김치도 직접 담궈서 손님상에 올리고 일주일에 한번 씩 계속해서 김장을 한다고 한다.



잔치국수	6,000
대7,000	
메밀생면	6,500
대7,500	
들깨메밀생면	8,000
김밥(한줄)	3,000
계절메뉴	
참살새알심	7,000
대9,000	
들깨참살새알심	8,000
대10,000	
새알팔죽	8,000
대10,000	
국수	7,000
대8,000	

- ① 가미국수 가게 내부
- ② 가미국수 메뉴들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 거기에 청양고추를 곁들여먹으면 끝맛에 느끼함을 잡아준다. 또한 참살새알심은 직접 만든 새알심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듯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새알팔죽도 손님들이 자주 찾는 별미인데 팔의 풍미를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조미료를 일체 쓰지않는 건강한 음식

가미국수는 국내산 재료만 사용하는 것 외에도 모든 음식에 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사장님은 양념장을 만드는 간장도 직접 메주를 끓여서 만들고, 다시마도 기장에서 직접 공수해서 쓴다며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건강한 음식을 고객들에게 제공해 오고 있다고 하였다.

고객들과 늘 함께하는 소소한 국수 맛집으로

15년간 한 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많은 단골고객들이 찾아오는데 지역기업인 중에는 화승그룹의 현승훈 회장이 단골로 찾는다고 한다. 인터뷰 중에도 고객들이 들어오면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권숙희 사장님은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며 즐겁게 가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가미국수 입구에는 가미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외 테이블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푸른 나무들과 함께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국수를 한 그릇 해보길 추천한다.

다양한 메뉴만큼 먹는 즐거움도 큰 곳

가미국수에는 잔치국수 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김밥과 메밀생면, 들깨메밀생면, 참살새알심, 새알팔죽 등이 있는데, 김밥은 특별한 재료가 아닌데도 새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내어 국수와 함께 곁들이기 딱 좋다. 들깨메밀생면은



김밥



잔치국수



냉메밀생면



들깨메밀생면



들깨참살새알심



새알팔죽

아버지를 답아 간다

김진호의 <가족사진>

글_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작가

가족 이야기는 늘 어렵다. 중년이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각자 자기 삶을 찾아 떠날 시점엔 가족 이야기가 더 어려워진다.

김진호의 노래 <가족사진>은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가족사진 속 아버지를 닮아 있다는 내용이다. 자식이 나이 들면 점차 부모를 더 닮아 간다. 돌아가신 부모가 더 많이 생각나는 이유다. 거울 속 내 얼굴에 부모의 그늘이, 슬픔이 함께 드리워진다.

내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내 얼굴도 아버지를 닮아 간다. 거울을 보면 아버지가 겹쳐진다. 매일매일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는 셈이다. 하릴없이 자주 아버지 꿈을 꾸다. 잠을 깨면 언제나 눈물이 조금 고여 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내게 미안하다 하셨고, 고맙다 하셨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함께 유튜브를 보며 서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 시간 때문에, 그 노래 때문에, 그날 날씨 때문에, 그때 아버지의 얼굴 때문에 아버지를 더 못 잊는다.

김진호의 노래 <가족사진>에는 착한 희망이 있다. 김진호는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 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이라 노래한다. 그러나 이 희망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를 웃게 할 수는 없지만, 부모와 함께 웃을 수는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를 방문하며 나는 효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를 위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어린애 같은 아버지를 핀잔하고, 다시 어르고, 함께 웃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그 시간을 살았다.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많이 아프시기 전, 필요한 게 많으셨다. 공구도 필요하고 튼튼한 담장도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기타도 사달라 하셨고 신용카드도 만들어 달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혼밥’을 하고 신용카드로 계산하면서 무척 즐거워 하셨다. 냉장고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말씀을 안 하셨기에, 아버지 냉장고는 늘 과잉이었다.

아버지는 한여름엔 땀이 나서 미장원에 가기 민망하니 내게 이발을 해 달라고 하셨다. 나는 참 별일을 다 하게 된다고 지청구를 한 번 하고, 술이 없고 가느다란 아버지의 머리카락에 주섬 주섬 가위질을 했다. 아버지는 무조건 마음에 든다고 했고, 나는 아버지가 무조건 마음에 들어 해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내게 어린애처럼 불평하고 뭔가를 고자질 하듯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기댈 사람이 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더 기 대실 수 있게 더 아버지께 불효막대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내가 더 시끄러웠으면 아버지는 덜 외로웠을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웃었던 시간을 더 기억하려 한다. 아버지에게 돼지국밥을 얻어 먹은 적이 있다. 아버지는 좀 부끄러워 하시며 식사비를 계산 하셨다. 얻어 먹은 나도 민망함을 감추려고 이런 저런 말을 많이 덧붙였던 것 같다. 아버지가 사 준 최초의 식사였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가난하고 경제권이 없었다.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계산은 늘 내 담당이었다. 그날 아버지는 돼지국밥 먹은 걸 계산하시며 좀 뿌듯하셨을라나.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계산하게 해 드려 좀 뿌듯했었던가.

나는 아버지와 눈을 닮았다. 눈두덩이에 살이 없고 꺼져 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들은 깊어질 것이다. 그러니 더 곤혹스럽다. 이 곤혹스러움에 저항하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닮아가는 이 눈을 보며 아버지의 어린애 같았던 불평과 원망을 더 떠올리려 한다. 그리고 웃으려 한다.

어떤 가족에게든 상처가 있다.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해서 생긴 상처보다, 이해해주지 못해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생긴 상처가 더 아프다. 그럼에도 이 상처는 살아가는 데 힘이 된다. 이 상처는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흔적이기 때문이다.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 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 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Story of 캡틴장

START

제임스 본드 같이 멋진 분위기의
캡틴장을 보여주는 캐릭터
by 웹툰작가 배민기

한·체코 우호협력 간담회 및 체코명예영사관 개관 기념식(2023. 3. 24.)



앞으로 부산과 체코간의 경제분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갑시다^^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경제인 총원우회
제7회 정기총회 및 9대 회장 이·취임식(2023. 3. 28.)



송진홍 회장님을 비롯한 원우 여러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

BIE회원국 한국공관장 초청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결의대회(2023. 3. 31.)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에 하면 '유치해! 해주이소~

BIE 실사단 환영 만찬(2023. 4. 4.)



2030월드엑스포 우리 부산이 개최하면 되겠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불꽃쇼(2023. 4. 6.)



330만 부산시민의 엑스포 유치 염원이 저 화려한
불꽃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 예방(2023. 4. 11.)



지역 기업들을 위한 상생 금융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123

(사)차세대기업인클럽 15주년 창립기념식(2023. 4. 11.)



부산 경제의 혁신을 후배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제251차 부산경제포럼(2023. 4. 12.)



명품강의 잘 들었습니다~
KDB산업은행 곧 부산 가족 되겠지?

UG 비즈니스클럽 초청 간담회(2023. 4. 12.)



재일동포 기업인 여러분 부산상공회의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부산방문! 그 현장 속으로!



4월 2일부터 7일까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한국에서 5박 6일간의 실사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4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 부산 실사 현장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BIE 실사단: 독일 출신 BIE 행정예산위원장인 파트릭 슈페히트 단장,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BIE 사무총장, 케빈 아이작 세인트키츠네비스 대표, 마누엘 잘츠리 스위스 대표, 페르디난트 나기 루마니아 대표 등 8명



BIE 실사단 부산방문 시민 환영행사(4. 4. 부산역)

BIE 실사단
“시민들의 유치 열기와 환대를 통해
마치 팝스타가 된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



BIE 실사단 환영 만찬 행사(4. 4. 시그니엘부산)



BIE 실사단 북항 시찰(4. 5. 북항)

BIE 실사단
“K-Culture 공연은 정말 화려하고 감동적”
“레드카펫을 걷는 것과 핸드프린팅을 통해
영화스타가 된 기분을 느꼈다”



K-Culture Night(4. 5. 영화의전당)



북항의 역사성, ‘대전환’ 주제와 맞아,
BuTX, UAM 미래형 교통수단 제시
BIE 실사단
“북항의 장점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것”



UN 기념공원 방문(4. 6. UN기념공원)

BIE 실사단장
“부산은 세계박람회를 개최할만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부산 이니셔티브는 세계박람회의 배경이 되는 아이디어”



BIE 실사단 공식 기자회견(4. 6. 시그니엘부산)

장인화 회장
“불꽃쇼는 부산시민의 유치열원을 담아
지역 기업인들이 후원하였습니다”



BIE 실사단 환송만찬 행사(4. 6. 누리마루APEC하우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불꽃쇼(4. 6. 광안리해수욕장)

사진출처: 부산광역시



경부공영 채석 개발 현장 전경

아시아 최초에서 세계로 최고의 품질을 꿈꾸는

골재생산 기업 (주)경부공영



경부공영의 시작

경부공영은 1986년 부산광역시 하단에서 경원건설업으로 시작해 이듬해 경부건설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1994년 법인을 (주)경부공영으로 전환하며 영업부도 없이 오로지 품질로만 승부해 쌍용, 한일, 대왕 등 레미콘 회사에 골재 납품을 시작하는 한편 롯데건설(주), 대림산업(주), 대우건설(주) 등 대기업 협력업체로 사세를 불러 나갔다. 2002년 본사 사옥을 착공하면서 석산 개발에만 매진해오던 사업 영역을 종합건설로까지 이어지게 하면서 종합건설인 경부건설(주)과 전문건설인 (주)용서건설도 설립하게 된다. 2006년에는 구조물 해체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과 중간처리, 재생골재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주)경부ENT를 설립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 및 자원의 절약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우리 삶의 터전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기업의 모토로 삼았으며, 2014년 김해채석단지에 허가받아 오늘날까지 친환경 사업장을 추구하고 있다. (주)경부공영은 대한민국 부산·경남 일대의 골재 및 모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기업이다.



(주)경부공영 박사의 회장

바위의 매력에 빠진 박사의 회장

1983년 (주)남광토건에 입사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현장에서 토목관리를 맡았을 때 박사의 회장은 “중동 특수로 피땀 흘리며 번 외화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그로 인해 건설 붐이 일어날 테니 골재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연골재는 한계가 있으니 고갈되고 앞으로 석산 사업이 잘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골재란 ‘썩지 않으니 유행을 타지 않고 안 팔리면 낡아도 되는 제품’이라 박사의 회장의 성향에 잘 맞아떨어져 그로부터 마음 깊이 골재 사업에 대한 꿈을 간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다니던 회사의 해체로 인해 사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꿈을 펼칠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시작이 순탄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여기저기 자금을 끌어다써 어렵게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았지만 개발지역에 묶여 혈값에 수용당하거나 사기를 당해 부도를 맞는 등 여러가지 악재를 겪으며, 마음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초심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가길 반복하며 끝까지 사업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정신이 서서히 빛을 발하며 한진건설(주)의 김해공항 활주로 포장공사에 이어 1997년 (주)삼익의 내서·냉정 고속도로 6공구, 1998년 여러 굴지의 대기업 공사현장 등에 골재를 납품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는가 싶더니 급기야 (주)경부농산을 인수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신사옥 착공과 (주)경부건설을 설립하고 현재의 김해시 상동면 매리 채석단지를 오픈함으로써 경부공영의 더 큰 도약과 함께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아시아 최초 최대 규모의 건설용 골재생산 독보적 기업

김해시 상동면 매리 채석단지에 2005년부터 120만㎡ 규모의 석산 부지 매입에 나서 10년 만에 첫 제품을 출하한 경부공영은 2016년부터 최신설비 공사에 나서 2017년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업으로 발돋움 하였다. 특히 2017년 1월부터는 해양 환경



스위스 볼보 건설기계 회장단 방문



보존을 위해 해사(바닷모래) 채취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등으로 선불을 주고도 골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경부공영이 국내건설업계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 1000톤 크래셔 설비를 완공하면서 골재의 대량생산 물꼬를 터 국내 골재 수급에 숨통을 트이게 했다. 경부공영은 '1000톤 크래셔(쇄석기)'를 비롯해 '800t 크래셔'와 '샌드플랜트', '로우더', '삭기', '유압드릴', '볼보 덤프트럭 A45G, A40E, A30D' 등 최첨단 설비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박사의 회장의 평소 지론인 '장비와 설비 투자는 제대로해야 최고의 품질이 나온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설비와 장비로 매년 실시하는 골재품질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였고 그에 따라 골재와 부순모래 수요가 매년 증가추세로 부산·경남 지역에서 조업 중인 약 13개의 레미콘공장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1 2 아시아 최초 1000톤 크래셔 준공식

골재생산에서 종합건설, 폐기물까지 원스톱 시스템

현재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주 재료인 골재와 모래는 원석을 쇄석기에 투입해 분쇄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생산된 골재와 모래는 건설업체와 레미콘으로 나가 건물을 짓는데 사용된다. 토목과 건축은 골재·모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또한 건물을 철거하면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러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까지 모두다 맞물려



돌을 부수는 볼보의 480E



로더가 자갈을 덤프 트럭에 싣는 모습



돌을 상차하는 볼보사의 A45G



작업중인 천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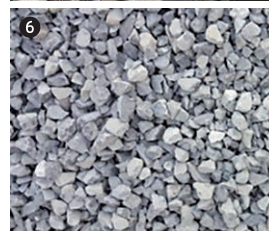
있다고 생각한 박사의 회장은 (주)경부건설과 (주)경부ENT를 설립한다. 경부건설은 토목과 건축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경부ENT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하는 철거와 폐기물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경부건설은 경부공영 본사 사육인 경부빌딩 신축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자갈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공사와 경남 토속어종 생물자원보전 시설 건립공사 그 외 주택공사, 주택건설, 택지개발, 전기 공사, 통신공사, 부지조성 및 매립공사 등을 하고 있다. 경부 ENT는 진해구 여좌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최근에는 김해시 유토피아~어방3교 도로재포장 공사, 그 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 재생골재 생산 판매 사업 산림 골재 채취, 토목 건축용 자재 판매, 건축물 해체 공사, 청소용역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한다.

끊임없는 품질 혁신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경부공영 경부공영은 최근 정부의 결정으로 매립식 기법으로 건설이 될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골재와 모래 수요에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생산성을 증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3 경부건설 경산지식산업단지 전경(토목)

4 경부건설 의령 자갈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 현장



5 경부공영의 자갈을 넣어 모래로 만드는 작업중인 기계

6 7 경부공영이 생산한 골재

골재와 모래의 품질을 더욱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품질개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국내에서만 찾아주는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주)경부공영의 뛰어난 생산능력과 품질의 우수함을 알아보고 골재를 공급받고 싶다는 문의가 이곳 저곳에서 꾸준히 들어온다고 하며 현재는 일본의 한 업체와 구체적인 협상이 오가는 중이라고 한다. 이렇듯 우수한 품질을 통해 신뢰도 형성을 중시해온 박사의 회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경부공영은 골재생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환원이 기업가의 필수적 사명이며, 기업이 더욱 성장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박사의 회장은 "오늘도 우리 경부인들은 매사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제대로 된 정품생산,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애정을 드러내며 마지막 인사말을 전했다. ⚙️



StartUP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2020 TIPS in Busan 부산시장상 수상

인공지능 해양오염물 회수 로봇 장비 기업 (주)코아이

해양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오염물인 유출기름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으며 이런 해상 오염물의 회수는 이전 허베이스트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태안 반도 사고)에서 경험한 것처럼 매우 힘든 방제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코아이는 이런 유형의 유출 사고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무인 구동 해상 오염물 회수 로봇 'KOBOT' 시리즈를 개발하여 해양경찰청 등 국내 공공 기관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물론 2022년에는 말레이시아, 쿠웨이트에 수출을 성공시키기도 하였다. 상공 드론을 이용하여 확보한 오염물 위치 정보를 전달 받은 'KOBOT'은 목적지를 향해 운항하며 주변의 오염물을 회수 저장하게 되는데 현재 사용중인 대부분 해상 오염물 회수 장비가 움직일 수 없는 고정식 장비로 30년 이상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장비는 최신 소재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무인 구동 로봇 방제 장비이다.



2019 부산지식재산페스티벌 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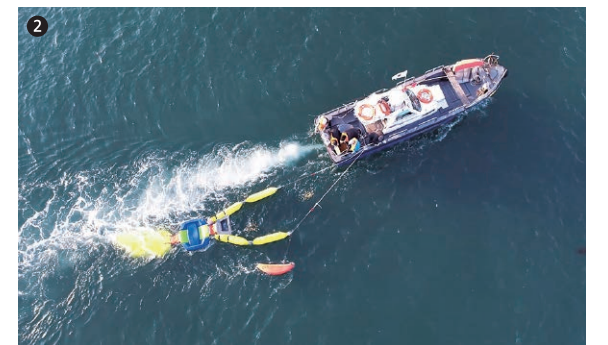


해양 오염물질 회수 장비 개발 시작

(주)코아이 박경택 대표의 이력은 독특하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후반의 나이에 부산 완구 회사에 취직하면서 사회에 첫 발을 시작 하였으며, 30대 중반에 개인 사업으로 시작한 완구 회사는 소위 연속된 대박을 기록하면서 국내 중견 완구 기업으로 발돋움 하였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당시 전국으로 점포 경쟁을 벌이던 대형 할인점에 입점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 하였으나,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밀리고 출산 인구가 감소 하면서 회사를 정리 하고 절치 부심 중에 능력을 눈여겨보던 지인의 제안으로 허베이스트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10주년을 맞아 해양경찰청에서 기획한 100억 규모 대형 국가 R&D과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과학기술을 통한 독창성이 돋보이는 오염물 회수 장비 'Dioneer' 개발

태안 반도 기름 유출 사고시 방제 작업에 참여하였던 선박의 90%가 비전용 방제선인 소형 어선들이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된 코아이는 나노 구조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학교 항공공학부와 공동으로 소형 어선의 견인만으로 유출유를 따라 가면서 회수하는 무동력 기반 유회수 장비 Dioneer(대면적 자동화 유회수기)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20회 이상의 실험 테스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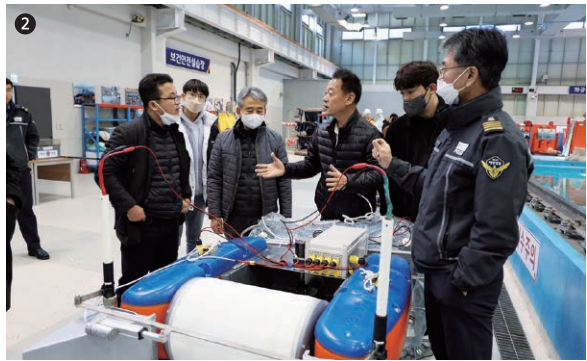


1 KOBOT 실험 테스트 모습
2 Dioneer 제품 영도 실험 TEST 진행 모습

거처 해양경찰청에 시범 배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수입 유출유 회수 장비는 단독 사용이 불가능한 위치 고정식 장비인데 반해 코아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Dioneer는 움직일 수 있는 회수 장비 기술로 세계적인 방제 전시회에 전시되어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작업자 역할이 최소화된 인공지능 로봇 'KOBOT' 개발

코아이는 개발한 장비들의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부산연구개발특구,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공고되는 스타트업 지원 과제를 통해 장비 고도화에 주력하던 중 기존의 무동력 장비에 동력을 추가하고 일부 부품 성능 개선을 통해 회수 성능을 크게 향상 시킨 KOBOT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개발 후 국내 실험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개발이 완료된 4가지 상용화 장비를 해양경찰청, 해양



환경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2022년 말레이시아 최대 항구 ‘포트클랑’에서 30명의 포트 매니저가 참가하는 대규모 글로벌 실증을 성공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쿠웨이트 실증을 거쳐 4종의 장비를 수출하는 성과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2023년 3월에는 현대중공업 오염물 회수 시연을 진행하였으며, 곧 2차 시연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미국 최대 방제 회사 ELASTECS사의 한국 독점 대리인

박경택 대표는 2019년 호주에서 열렸던 최대 방제 전시회 2019 SPILLCON에서 미국 최대 방제 회사 ELASTECS사의 CEO Mr.Jeff를 만나 서로의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미국을 방문 하여 당시 ELASTECS사에서 진행한 국제 방제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으며 장비 전담 이사인 Mr.Yan의 한국 방제 기관 투어를 성사 시켰다. 이를 계기로 박경택 대표는 ELASTECS사의 한국 독점 대리인으로 지정이 되어 현재 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



ELASTECS사 CEO Mr. Jeff와 기념촬영

1 코아이 제품 제작 현장
2 2022 해양경찰청 전문가 리빙랩 현장
3 2022 부유형 미세 플라스틱 회수 기술이전 조인식

미세 플라스틱 회수 기술 이전 성과와 해외 판로 개척

코아이는 202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부유성 미세 플라스틱 회수 관련 원천 기술 특허 3가지의 기술 이전을 완료하였는데, 해양 플라스틱은 해양에 부유하면서 햇빛과 해수의 영향으로 잘게 조각으로 부서지면서 80%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하여 물고기 먹이 사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인체에 유입되어 큰 위험을 갖는 유해 물질로 알려졌었다. 이외에도 코아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로부터 기술 이전을 통해 자체 특허를 포함하여 총 40건 이상의 IP권리를 확보하면서 2023년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 IP스타기업)기업으로 지정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지원, 개별국 특허 지원, 홍보 영상 및 카달로그 제작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한편 코아이는 창업 후 지속적으로 매년 3회 이상 해외 메이저급 조선 해양 방제 전시회를 참가해왔는데, 2022년에는 CES(라스베가스) INTERSPILL(암스텔담) SMM(함부르크) OGA(쿠알라룸

푸르)에 참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현재까지 CES(라스베가스)에 참가하였으며, NOR-SHIPING(오슬로), 동경소방방재전(도쿄), 국제무인기 전시회(심천), SPILLCON(호주)에 참가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있다.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으로 성장

현재 코아이는 동의대학교에 본점과 한국해양대학교에 지점이 있으며, 다대포 무지개 공단내에는 제작 공장을 운영 중에 있으나 위치가 분산되어 있어 추후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공장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코아이는 ISO9001, ISO14001, ISO27001, 수출유망중소기업, IP기반해외진출지원기업, 테크노파크 우수 파트너기업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35회 부산산업디자인 전람회 대상, 2019지식재산(IP)페스티벌 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상, 2020 TIPS IR 대상, CBC KOREA 대상(한국대표선발), 2022 글로벌투자자 네트워킹 IR 피칭 1위, 20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하며 보유 기술에 대한 독창성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박경택 대표는 “코아이가 가진 원천 기술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연구개발을 지속하여,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4 CES 2023 현장 모습
5 쿠웨이트 BCI사와 수출 MOU 체결

 ISO 14001	 ISO 27001	 ISO 9001	 벤처기업 확인서	 부산광역시회의회장 감사장
 부산시장표창장	 수출두드림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표창장	 TIPS IR IN BUSAN 부산광역시시장상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정 확인서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소비하는

체리슈머 Cherry-Sumer

Q 혹시 나는 체리피커? 체리슈머? OK

TV나 잡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체리슈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체리피커’(cherry picker)와 ‘소비자’(consumer)가 합쳐진 신조어다. ‘체리피커’는 나무의 열매 중 제일 잘 익은 열매만 골라 먹거나 케이크에 올려진 체리만 빼먹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이득만 생각 하며 기업들의 제품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허점을 노려 실속만 챙기는 골치 아픈 소비자를 칭하는 말이다. ‘체리 슈머’는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고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 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현명한 소비자를 말한다. 자신의 이득만을 위한다는 부정적 의미를 가진 ‘체리피커’와는 다르게 알뜰하게 소비하면서 절약을 실천하는 ‘체리 슈머’에 대해 알아보자.



Q 체리슈머라는 신조어는 왜 생겨났을까? OK

‘체리슈머’(cherry-sumer)가 최근의 소비 트렌드가 된 이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1인 가구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율로(YOLO)의 자세로 플렉스(FLEX)를 하면서 과소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과 함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중들은 무지출 챌린지 등 현명하게 돈을 쓰고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소비 습관을 기르고 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아닌 혼자 생활하면서 식료품, 생활용품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혼자 사용하기 좋은 제품 및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소비자는 새로운 소비 세력이 되었다.

Q 체리슈머처럼 아끼고 절약하는 방법은? OK

‘체리슈머’(cherry-sumer)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다. 본인들의 자원을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가성비를 따져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며, 중요하고 꼭 필요로 하는 것만 구매한 후 나머지 자원은 저축한다. 이렇게 알뜰하게 소비하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체리 슈머’에게는 소량구매, 공동구매, 유연구매 3가지 구매 형태가 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1 — 소량구매(조각전략)
소량구매는 다른 말로 조각전략 이라고도 한다. 체리 슈머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많아 필요한 부분만 조각내어 최소한의 소비를 한다. 쉽게 말해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매 방식은 식품을 소비할 때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용량 제품이 가격 측면에서는 저렴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1인분으로 구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2 — 공동구매(반반전략)
공동구매는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사람들과 함께 비용을 나누어 구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꼭 지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과도 목표가 같다면 함께 구매하고 비용을 나누기도 한다. 최근 들어 인기 배달앱에서는 높은 배달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들끼리 배달비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문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3 — 유연구매(말랑전략)
생소하게 들리는 유연구매는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원하는 서비스를 계약할시 장기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필요한 만큼만 계약할 수 있는 단기 계약을 선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하는 영화, 드라마가 한곳이 아닌 각각 다른 OTT 플랫폼에 소속되어 있으면 원하는 콘텐츠 볼 때 해당 서비스를 구독하여 이용하고 이후에는 구독을 해지하는 방식이다.

Q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OK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체리 슈머’가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비슷하거나 또 다른 소비 트렌드가 생겨날 수도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알뜰한 소비를 하면 절약을 실천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알뜰한 소비가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것으로 보인다. 🧠

MZ세대 관심과 욕망

글_ 이민영 T&D 파트너스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소장

주요경력

- 현) T&D 파트너스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소장
- 현) 현대그룹 현대인재개발원 전문교수
- 전) W.insight 부원장(문제해결 리더십 과정 개발)
- 전) CMOE 코리아 코칭 리더십 전문 강사

방송활동

- TV조선 킹스맨(2020)
- KBS 사장님이 미쳤어요(2018)
- tvN 토론대첩(2017) 등 다수 출연

주요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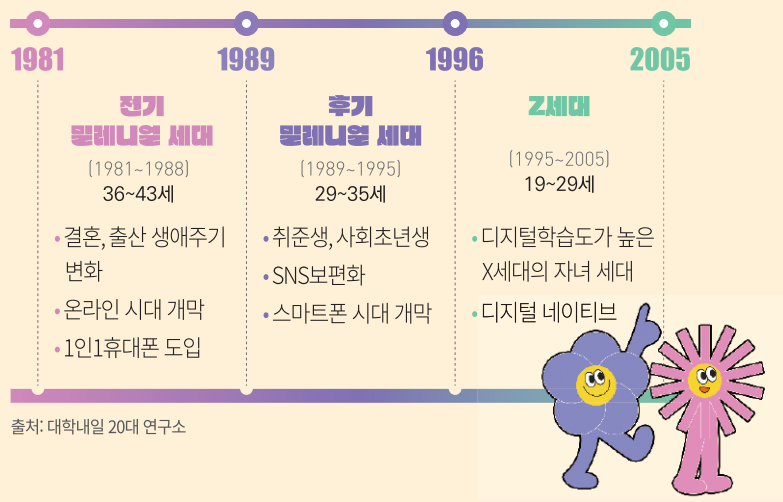
- 젊은 끈대가 온다(2022)
- LOOK BACK 룩백: 뒤돌아보게 만드는 힘(2015)
- 말은 어떻게 공감을 얻는가(2015)
- 당신없는 회사에 가고싶다(2014)

❁ 왜 세대를 논하는가?

은 세상이 MZ세대와 소통을 하겠다고 한다. MZ세대들과 식사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다양한 접촉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한다. 왜 세대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즉 나의 고객들 혹은 고객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들어 내는 서비스나 재화는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 고객층의 세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만약 기성세대라면 세상의 변화를 읽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들의 아이디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조직은 MZ세대들에게 매력적인 조직이어야 MZ세대 인재를 영입할 수 있고, 이들의 아이디어로 조직이 성장하게 된다.

❁ X세대, M세대, Z세대 그리고 알파세대

우리나라에 세대의 명칭이 등장한 때는 X세대부터 이다. 1991년 캐나다에서 [X generation]이라는 소설이 발간되면서이다. 이 소설에서 X세대를 “이전 세대랑 뭔가 달라”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이 소설이 소개되었고 당시 막 성인이 된 이들을 X세대라 부르게 된다. 90년대 성인기에 접어든 이들, 70년대 태생들이다. 그 이전 세대를 베이비 붐 세대라 한다. 말 그대로 인구가 막 증가하던 시기이다. 베이비붐 세대, X세대를 잇는 다음 세대가 바로 M세대이다. ‘밀레니얼(2000년)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는 이들’이라는 의미로 밀레니얼 세대라 한다. 80년대 이후 태생을 의미한다. 1980년생은 2023년 기준, 한국 나이로 44세이다. 44세이면 사실 이미 끈대 나이로 끈대가 되었다 본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를 전기 밀레니얼, 후기 밀레니얼 세대로 나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MZ세대는 후기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로 이해해야 한다. X, Y(밀레니얼 세대), Z로 마치고, 다시 알파벳 앞으로 돌아간다. 알파세대, 그 다음 세대를 베타세대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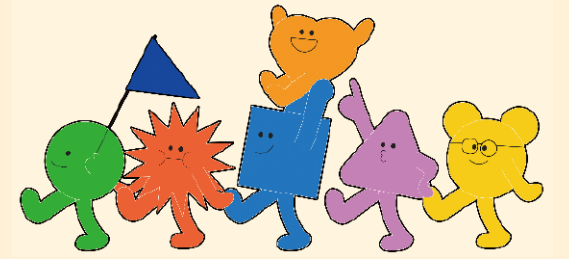


❁ 서로 다른 성장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사회학자 칼 만하임(1893-1947)은 ‘세대란, 17세에서 25세 사이 청년기에 어떤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의식과 문화 지식을 갖게 되는 유사한 인구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 저 양반 끈대네” “요즘 친구들 우리 때랑 달라?” 라는 말을 하면 안되는 이유이다. 그들이 그 시기에 같은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아 비슷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으므로 비난과 비판이 아닌 수용적인 마음가짐이 답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는 일제시대, 625전쟁, 다양한 정치적인 이슈들, 혹은 88서울 올림픽, IMF, 세월호 사건, 최근의 코로나 19까지 정말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다. X세대인 나에게서는 88서울 올림픽이다. 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급발전하고 해외에 많이 알려지게 된다. 이런 X세대를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성장한 세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베이비 붐의 경험은 어떠한가?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후진국에서 성장한 세대이다. 모두가 잘 살지 못했던 때이므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현장에 나와 지금까지 일만 하던 세대이다. 이들은 “워라벨이 뭔지도 모르지만, 워라벨이 필요하지도 않은 세대”라고 한다. 서로의 경험이 다르니 야근이나 근태로 세대 갈등은 당연하다. 이들의 또 다른 큰 차이 점은 형제 수의 차이이다. 내 친구 중에는 딸만 다섯인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 집을 방문하면 굴이 한 박스 씩 있곤 했다. 형제가 많으니 과일도 박스로 사야 했다. 친구는 본인의 방에 들어가면서 책가방에 굴을 잔뜩 집어 넣는 게 아닌가.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먹을 게 없어”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흔한 풍경이다. 경험으로 기성세대, X세대는 가정 안에서 경쟁을 경험하고 이 안에서 생존 본능이 생긴다. MZ세대들에게 강렬한 열정이나 생존 본능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성장배경 때문이다.

❁ 코로나 19세대 세대

현재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은 비대면 시대에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들은 신입생 환영회, MT, 단체 미팅 등의 경험을 전혀 해 보지 못했다. 비대면 수업을 들으면서 점심을 혼자 먹는 경험으로 혼밥이 디폴트 값이 되었다. 밥은 혼자 먹어야 넷플릭스 ‘더 글로리’를 볼 수 있다. 어느 임원이 구내 식당에서 신입사원과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 맛있게 하계. 회사 생활은 어떠한가?” 라고 물어 보려는데, 이 신입사원은 이미 아이팟을 귀에 꽂고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점심시간은 법이 보장한 휴게시간이다. 이 시간에 임원과 대화를 나눈다는 건 자신의 휴게 시간을 침범하는 행위라 이해될 것이다. 그럼 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친해지고 협업을 할 것인가? 이 생각부터 변화를 주어야 한다. 왜 친해져야 하는가? 친해져야 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오히려 직원과 너무 친해지면, 평가를 하게 될 때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 생긴다. “형님으로 모셨는데, 평가가 이게 뭐야” 이런 관계를 옳다고 보는가. 아는 지인 중에 뉴욕에서 10년간 직장생활을 한 이가 있다. 이 친구는 10년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동료랑 같이 밥을 먹는 기억이 딱 10번이었다. 연말파티때 말이다. 밥을 같이 먹는 문화가 없어도 이 기업들은 잘 돌아간다. “그래도 우리 나라, 우리 조직은 아니야. 난 가족같은 회사가 좋아” 맞다. MZ세대들도 가족적인 분위기의 회사를 원한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가족은 기성세대가 경험한 가족과 다르다. 아버지, 형님이라 불렀던 권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회의를 하며 수평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했고, 친구같은 부모였다.

❁ 관심과 간섭을 구별하라

그럼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회의적으로 접근한다면, ‘끈대 인증’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2019년에 발표된 연구결과가 있다. 대면하지 않고 IT기기를 활용한 1분 미만의 피드백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MZ세대 직원들에게 물어보았다. 관심과 간섭을 구별해 달란다. 시간이 길면 간섭으로 느껴 진단다. 결국 “라떼는~”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제부터는 눈에 보일 때, 그 때 그 때 할 말을 하자. 단, 짧게 하자. 감정을 배제하고 담백하게 말이다.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하니?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회 생활하지?”가 아니라, “이 부분은 참 좋다.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

UAM



최근 부산에 방문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은 공식 일정 중 UAM(도심항공교통) 기체에 올라타 VR고글을 쓰고 북항 일대의 전경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현장을 가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실사단은 Amazing! 이라고 외치며 UAM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하늘을 날아 이동하여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UAM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 R B A N A I R M O B I L I T Y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

글로벌 주요국들과 우리나라에서 대도시권의 도심 교통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UAM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F영화에서만 봐오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UAM은 수직으로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는 개인항공기로 해외를 갈 때 이용하는 항공기와 달리 크기가 작으며 활주로가 필요 없습니다. UAM은 연료 효율이 높으며 순항 속도가 헬기보다 월등히 빨라 이동할 수 있는 반경이 넓습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소음이 작아 도심에서 조용히 비행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보통 4-5인승 정도로 헬리콥터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쉽게 착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UAM시장

글로벌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UAM 시장 규모를 2020년 70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1조 4천억 달러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UAM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는데에는 글로벌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메가시티화로 인한 도심 교통난 심화를 주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독일 등 일부 해외기업은 2024년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은 수직이착륙비행체를 개발해 미국연방항공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독일의 볼로콥터는 2022년 프랑스 파리에서 유인시험비행에 성공한데 이어 2024년에는 서울에서 항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의 이항社 역시 서울, 암스테르담, 두바이 등에서 시연비행을 성공하였으며 미 연방항공국 승인을 준비하는 등 상용화를 위한 단계를 착착 밟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5년 상용화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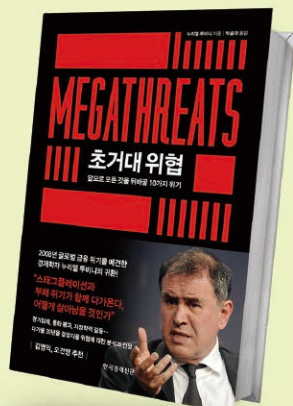
우리 정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 시험·실증, 서비스·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중장기 K-UAM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2024년 비행실증을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UAM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이 기체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운항과 관제 통신을 위해 SKT를 포함한 통신 3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설 및 서비스 인프라를 위해 현대건설, GS칼텍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UAM 관련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국내 상용화와 서비스를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인력양성 각종 규제완화도 필요한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도서추천
영광도서
Since 1968

길고 지독한 침체가 온다
어떻게 미래의 위기에
대비할 것인가?



조선일보 '2023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를
책으로 만나다!

2023 대한민국 재테크 트렌드

조선일보 경제부 | 원앤원북스 | 19,500원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시그니처은행 폐쇄,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예금 인출 사태 같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니 사람들은 불안해진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와중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지는 않을지 두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봉쇄되고 정부와 중앙은행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돈을 풀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폭등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금, 세계경제는 지난 40년간 겪어본 적이 없는 인플레이션에 빠졌고, 이에 맞서 미 연방준비제도를 필두로 한 중앙은행들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애 나섰다. '초저금리에 돈이 넘쳐나던' 재테크 환경은 어느새 '고금리에 돈이 부족한' 시대로 뒤바뀌었다. 혼돈의 2023년, 어떻게 해야 내 자산을 늘리고 더욱 단단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책은 재테크 전망, 금융 및 부동산 투자 전략, 자산 전략에 대해 현직 최고의 투자 전문가 22명의 메시지를 담았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어느 해보다 이 책에 담긴 전문가들의 인사이트가 빛을 발할 것이다.

초거대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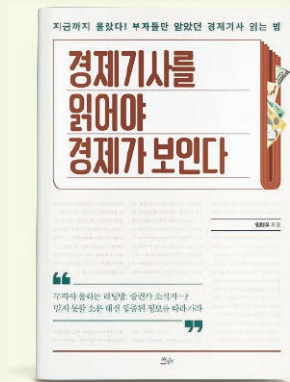
누리엘 루비니 | 한국경제신문 | 25,000원

누리엘 루비니의 이름 앞에는 수많은 수식어가 붙는다. 가장 맨 앞에 그리고 자주 붙는 것은 '2008년 금융 위기를 예견한 경제학자'라는 수식이다. 그는 2006년부터 즐기차게 세계 경제의 위기를 경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 시작된 불황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이 책은 제목대로 오늘날 전 세계에 드리운 '거대한 위협' 10가지를 해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루비니 교수가 꼽은 10가지 위협은 다음과 같다. 부채 증가,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정책과 과도한 양적 완화가 불러온 결과, 스태그플레이션, 통화 붕괴, 탈세계화, 미중 갈등, 고령화와 연금 부담, 불평등 심화와 포퓰리즘의 득세, AI의 위협, 기후 위기. 개별 문제 그 자체로도 해결이 쉽지 않는데, 각각의 사안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 상호 영향을 끼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가 보기에, 지금이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당시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이자 이 책을 쓴 이유다.

도대체 누가 '적정' 가격을
결정하는가?



부자들만 알았던
경제기사 읽는 법



달러를 둘러싼 세계 경제와
미래에 대한 가능성



빈곤의 가격

루퍼트 러셀 | 책세상 | 22,000원

우리의 월급은 그대로지만 물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천정부지로 한없이 치솟는다. 이 가격은 과연 누가 정하는 것일까?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합리적인 경제주체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가격은 ‘합리적’이고 ‘균형’이 잡혀 있을까? 하버드 사회학 박사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루퍼트 러셀은 ‘가격’의 가장 원초적인 부문인 원자재의 시장에 주목한다. 원자재 가격이 급변할 때 대기근과 난민, 폭동과 혁명, 부정부패와 빈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아랍의 봄이 발발했던 이라크부터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케냐까지 수많은 국가를 넘나들고, 헤지펀드 매니저, 경제학자, 난민 등 다양한 사람을 인터뷰하며 ‘가격의 나비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경제 기사를 읽어야 경제가 보인다

임현우 | 책들의정원 | 23,000원

돈이 어디에 몰리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제 기사를 꾸준히 읽는 것이다. 이 책은 지금 당장 알아야 할 100가지 경제 이슈를 선별했다. 중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준으로 쉽게 풀어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실제 뉴스 기사를 보여주며 생동감을 살렸으며 질문을 통해 경제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했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개미 투자자가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등 글로벌 이슈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해외 경제 기사를 충분히 다룬 점도 눈에 띈다. 하루만 쉬어도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정보가 쏟아지는 요즘, 이 책은 경제적 생존을 위한 필수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킹달러의 미래

김정호 | 북오션 | 20,000원

달러가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은 5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중국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나 암호화폐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여러 통화들이 각축을 벌이는 다극 통화 체제가 될 거라는 예측도 등장했다. 달러 붕괴론으로는 대표적으로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예언이 있다. 이 체제가 붕괴되었어도 달러는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책은 세계 통화의 위기와 달러의 역사에 대해 기술한다. 신생 독립국인 미국의 화폐가 어떻게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었는지, 각 나라의 통화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달러 체제의 사령탑인 연준이 어떻게 세계 통화 시장을 조절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중국 위안화와 유로, 금, 디지털화폐 등 달러의 경쟁자들을 다룸으로써 달러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과 그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usan Economic News

2023 05 May

부산상공회의소 UG비즈니스클럽 초청 간담회 개최



부산상공회의소는 4월 12일 오후 2시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UG비즈니스클럽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UG비즈니스클럽은 재일동포 기업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립을 위해 1990년 설립된 재일동포 경제인 모임이다. 이번 UG비즈니스클럽 초청 간담회는 한일 간 민간 경제계 교류 확대 취지에서 평소 재일동포 기업인들과의 친분이 있는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의 요청에 의해 장인화 회장이 부산을 방문하는 UG비즈니스클럽을 초청함으로써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주도하고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부산상의 역할을 소개하고, 향후 재일동포 기업인들과 부산 경제계의 교류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일 동포 경제인 여러분들이 매우 다양한 업종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을 계기로 부산경제계와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현재 부산은 2025년 오사카에 이어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일본이 부산을 적극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재일동포 경제인 여러분의 일본 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주)코리녹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특별성금 1,000만원 기부

(주)코리녹스는 3월 30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에 복구사업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특별성금 1,0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성금 전액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을 위한 인도적 구호활동과 파괴된 지역 재건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재고 (주)코리녹스 회장은 “유례없는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주)코리녹스는 나눔명문 기업에 부산 15호로 가입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넥센그룹·동원개발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동원개발 장복만 회장 하동세계차엑스포 입장권 1만매 구매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하동세계차엑스포 민간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과 부산의 향토기업인 (주)동원개발의 장복만 회장이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입장권 1만매 구매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병중 회장과 장복만 회장은 엑스포의 홍보를 위해 입장권 1만매를 직접 구매하여 직원과 학생들이 행사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차 분야 최초의 정부



승인 국제행사다. 강병중 회장과 장복만 회장은 “하동세계차엑스포가 차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DRB동일

총상금 2,000만원 스페이스 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주)DRB동일은 4월 3일 우주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DRB 스페이스 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DRB 스페이스 챌린지 주제는 ‘달 자전거 만들기’이다. 이번 챌린지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는 시제품 제작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DRB 스페이스 챌린지의 총상금은 2,000만원이며 대상 1팀(1,000만원) 최우수상 1팀(500만원) 우수상 1팀(300만원)에는 시제품 제작 및 시연 기회가 부여된다. DRB동일 관계자는 “이번 DRB 스페이스 챌린지는 우주 시대를 함께 준비하고,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골든블루

세계 3대 국제주류품평회 IWSC서 9년 연속 수상

(주)골든블루는 4월 6일 영국에서 개최된 국제주류품평회 IWSC에 참가해 출품작 5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1969년에 시작해 올해로 54회째를 맞이하는 IWSC는 샌프란시스코 주류품평회, 벨기에 브뤼셀 몽드셀렉션과 함께 세계 3대 주류품평회로 알려져 있다. 매년 전 세계에서 모인 스피릿들을 엄격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 심사하고 수상작을 선정한다. 골든블루의 제품 중에는 ▲골든블루 사피루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팬텀 디오리지널 리저브 ▲팬텀 오리지널 17 ▲혼 등 총 5개의 제품이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골든블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술의 가치와 품격을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Busan Economic News

2023 05 May

대한제강(주)

‘철에서 삶을 본다’ 고(故) 오완수 회장 자서전 출간

대한제강(주)은 지난해 별세한 고(故) 오완수 대한제강 회장의 추모 1주기를 맞아 고(故) 오완수 회장 자서전 ‘철에서 삶을 본다’를 출간했다고 4월 10일 밝혔다. 대한제강(주)은 회사를 약 60년간 이끈 오 회장이 2012년까지 집필한 글을 모아 자서전 펴냈다고 전했다. 이 책은 애초 2013년 봄에 출간하려 했으나 평생 공장만 보고 살아온 삶을 책으로 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오 회장 뜻에 따라 타계 1주기에 맞춰 세상에 나왔다. 자서전은 총 4부 27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평생 ‘철강’ 한길로만 매진해 온 오 회장 인생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읽을 수 있다. 자서전에는 고(故) 오완수 회장과 깊은 인연을 가진 장복만 (주)동원개발 회장, 권혁운 IS동서(주) 회장 등의 글도 담겨있다.



대선주조(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노블클럽 가입

대선주조(주)는 4월 11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고액 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린노블클럽은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1억원 이상 기부하거나 5년 내 기부를 약정한 고액 기부자 모임이다. 부산 76호, 전국 404호 회원이 된 대선주조는 어린이재단의 인재 양성사업 ‘아이리더 챌린지’와 연말 사회공헌 프로그램 ‘산타원정대’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선주조(주) 조우현 대표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더 밝게 웃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자동차

엑스포 유치 기원 프랑스 유명 작가 사진전 후원

르노코리아자동차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출신 세계적인 여행사진작가 토마스 구아스크를 초청하여 사진전을 후원하였다고 4월 10일 밝혔다. 부산의 세계 박람회 유치 열기와 매력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이번 사진전에서는 구아스크 작가가 직접 촬영한 부산의 과거, 현재, 미래 등 다양한 모습을 관람할 수 있으며, 사진전은 4월 10일부터 5월 6일까지 부산 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된다. 르노코리아 자동차는 오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될 예정인 국제박람회 기구 제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때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BNK부산은행

‘방과후 온라인 수강권’ 전달식 개최

BNK부산은행은 4월 13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방과 후 온라인 수강권’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BNK부산은행은 원도심에 있는 21개 고등학교 학생 2,600명에게 온라인 수강권을 지원한다. 부산시교육청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수능 전 과목 온라인 강의를 1년간 구독할 수 있다. BNK 부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부산시 교육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BNK부산은행은 ‘안전우산 지원사업’, ‘BNK행복장학금 사업’등 다양한 교육기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오리엔탈정공

한국해양대학교와 ‘미래선박 우수인재 육성’ 업무협약 체결

(주)오리엔탈정공은 4월 13일 미래선박 분야 우수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해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주)오리엔탈정공은 후원기구 ‘미래선박우수인재육성후원회’에 가입하고 한국해양대 학생 성장을 위해 4년 동안 대학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한다. 미래선박우수인재육성후원회는 해사대학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미래 선박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리엔탈정공은 선상크레인 분야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70%, 1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제일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에어부산(주)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탑승수속 서비스 시작

에어부산(주)은 4월 14일 수도권 여행객 편의 확대에 나서기 위해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전용 체크인 카운터를 개설하고 인천발 국제선 이용객 탑승수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탑승 수속은 서울역 지하 2층 2번 에어부산 전용 카운터에서 진행되며 탑승 수속과 수하물 위탁을 마치면 인천공항에서는 출국장 전용 통로를 이용해 편안하게 출국할 수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승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카운터를 개설했다”고 전했다.

슬기로운 회원생활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2023년 5월)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의 각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안내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인사노무관리 핵심 포인트 365

일 시 5. 12.(금) 09:30 ~ 17:30(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이승주 대표 노무사(노무법인 익선)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 제	내 용
모집·채용 및 근로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채용시 유의사항,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 기간, 수습기간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근로계약과 다른 계약의 구별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의 개념, 통상임금, 평균임금, 법정 가산수당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휴업수당, 임금지급 방법
근로시간 및 휴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의 개념 및 범위, 법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규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휴게시간의 개념 및 법정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 휴일 및 약정 휴일, 휴일과 휴무일의 구별 휴일의 대체, 법정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보상휴가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해고 등 징벌, 근로관계 종료

중소기업 임직원이 알아야 할 회계·세금상식과 상속·증여 등 절세전략

일 시 5. 17.(금) 09:30 ~ 17:30(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강 사 오종원 회계사(상속·증여 세무전문가)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 제	내 용
중소기업 임직원이 외부여신 평가 대비 알아야 할 회계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의 의미와 주요 항목 해설 기업의 재무구조 양호여부 판단시 유익한 재무비율 외부 여신기관 등 신용평가시 유의하여야 할 재무분석 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세/소득세의 핵심 해설
중소기업 임직원이 외부여신평가 대비 알아야 할 세금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와 지출증빙/대손금 절세관리 (분리과세)주택(상가)임대소득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매입세액 불공제사유와 2023년 개정 판매장려금의 계산서 발행요건 1세대 1주택 임대세 비과세/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국고보조금과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상속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세의 의미/계산구조/상속가액의 평가 2023년 신설 중소기업 상속세 납부 유예제도 (비)상장주식을 통한 기업상속공제 적용요건과 2023년 개정 해설 상속세 세무조사시 주요 추정사례
증여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세의 의미/부모자녀간의 증여시 비과세한도와 절세전략 증여세 세무조사시 주요 추정사례 아파트 등 증여시 유의사항/증여가액의 평가 배우자에 주식증여시 이월과세 세무조사 추정사례 분석
조세전문가의 실제 자문사례 해설과 개별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중소기업 CEO 세무상담사례 해설 중소기업 가지급금/자기주식 소각 세무관리 특수관계자간 차등배당시의 절세에 관한 최신 유권해석 수강생 개별사안 상담

하루 만에 총무업무 마스터 하기

일 시 5. 22.(월) 09:00 ~ 18:00(1일 8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이종연 교수

(現 경영실무연구소 소장 &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교수)

수강료 회원 88,000원, 비회원 176,000원

주 제	내 용
총무기능 및 환경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무 기능 및 총무 업무 기본 구조 지식사회형 총무기능 패러다임 변화
사무행정 및 회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환경 및 기록물 관리 기본구조 회의준비 및 회의 진행 실무 일반
행사전략 및 복리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계획 기본전략 및 행사진행 기초 복리후생 전략 설계 및 트렌드 변화
총무자산 및 임대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무자산관리 기본 프로세스(PLM) 전세권 및 임대차 분쟁 기초 법리
총무계약 및 매출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계약서 작성 및 확장 스킬 매출채권 효율적 회수 방법론

2023 개정세법 해설과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방안 실무 (세목별 조사항목 준비, 행정해석 해설, 조세불복 등)

일 시 5. 24.(수) 09:30 ~ 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강 사 오종원 회계사(상속·증여 세무전문가)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 제	내 용
2023년 개정세법 해설과 국세청 세정방향 반영한 세무조사 의의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조사 대응에 필요한 2023년 개정세법 해설 최근 발표된 주요 세무조사 및 신고이후의 성실신고 사후검증 일반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서면조사 등의 의의와 구분기준 2023년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세정방향 최근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조사사무처리규정”을 반영한 세무조사 관련 규정 해설
개별 세목별 주요 추정항목의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의 세무조사 주요 추정사례 분석 부가가치세의 세무조사 주요 추정사례 분석 상속·증여세의 세무조사시 유의할 체크리스트 상속증여시의 부동산 평가시 유의사항 등 이전가격제세상의 시가 판정 부동산 등 재산 취득이후의 자금출처 소명시 유의사항
조세불복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주요 업종별 세무조사 대비 행정해석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최신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세무조사대응에 필요한 국세청 행정해석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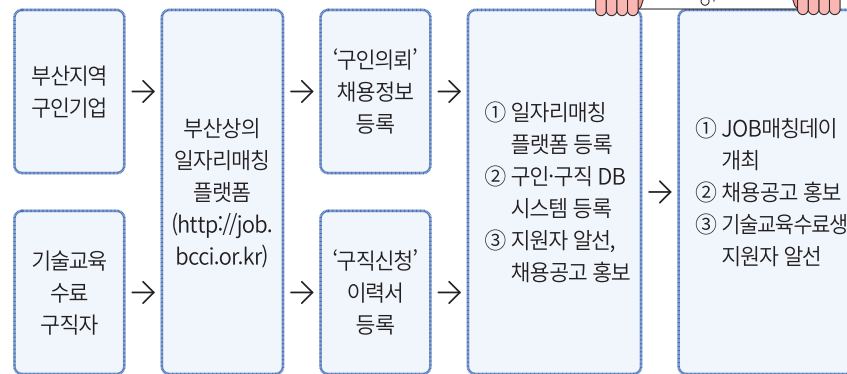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매칭 플랫폼」 사업 안내

사업내용

- ✓ 상시 온라인 일자리매칭
- ✓ 구인·구직 JOB매칭데이 행사 개최(5월, 7월, 9월, 11월 예정)
- ✓ 정부 일자리지원사업 연계 지원

신청방법

- ✓ 일자리매칭플랫폼(URL: <http://job.bcci.or.kr>)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차 구인·구직 JOB 매칭데이」 현장 면접 행사 개최

일시 2023. 5. 24.(수) 10:00 ~ 16:00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2층)

대상

- 기 업: 부산지역 구인기업
- 구직자: 직업교육 전문기관 기술교육 수료생

주요내용

- 20개 직업교육 전문기관의 기술교육 수료생과의 현장 채용면접
- 행사 전,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지원자 면접타임테이블' 제공
※ 기업 별도 소요비용 없음

문의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T. 051-990-7085, 7198)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부산지역 조선·기자재업종 기업의 정규직 채용 촉진을 위해
취업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 모집기간: 사업공고일 ~ 2023. 12.(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 까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필수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연령 무관
- ✓ 지원요건: 2023. 3. 1. 이후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기자재업종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조선·기자재업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C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해당 기업
- ②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
(2022년말 기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목록 확인)
- ③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회원증 사본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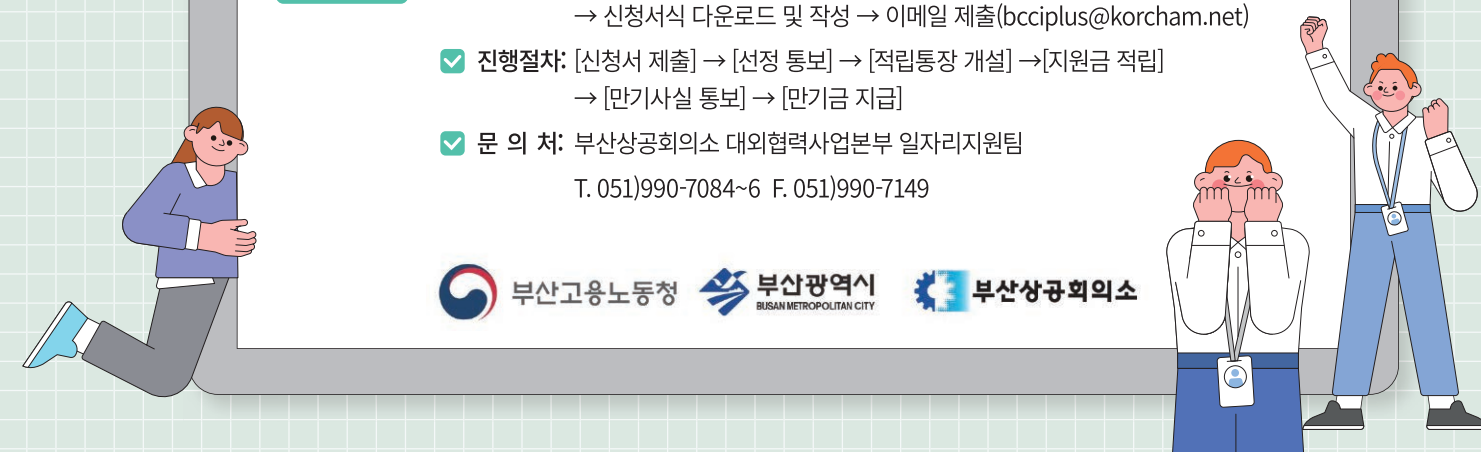
※ 2023. 1. 1. 이후 채용되어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으로 인정

- ✓ 지원금액: 근로자가 1년간 근속 시, 600만원 자산형성



신청절차

- ✓ 신청방법: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 매칭 플랫폼(www.bcci.or.kr/job/) 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이메일 제출(bcciplus@korcham.net)
- ✓ 진행절차: [신청서 제출] → [선정 통보] → [적립통장 개설] → [지원금 적립] → [만기사실 통보] → [만기금 지급]
- ✓ 문의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T. 051)990-7084~6 F. 051)990-7149





환 경
Environment

사 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선택이 아닌 필수 ESG! 부산광역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함께 합니다

2023년 부산기업 ESG 상생경영 지원사업

지원대상

- ① 원청기업 - 협력기업 상생협력모델 30개사
- ② 중소기업 ESG 확산지원모델 8개사

지원내용

ESG 컨설팅 및 심층진단 지원

신청방법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www.bcci.or.kr
공고문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접수(dudrb@korcham.net)

신청기간

2023. 04. 21.(금) ~
2023. 05. 08.(월)

문의처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
Tel. 051-990-7064, E-mail. dudrb@korcham.net

① 원청기업 - 협력기업 상생협력모델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이며,
부산광역시 소재 협력업체 5개 동반 참여 가능한 기업

지원수준

원청기업: 최대 4,000만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ESG 컨설팅 지원
[지원금: 최대 3,200만원(80%), 기업부담: 최대 800만원(20%)]
협력기업: 최대 300만원 심층진단 지원(전액 지원)

지원규모

원청기업 5개사(동반 참여 협력기업 25개사)

지원내용

원청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ESG 컨설팅, 협력기업 ESG 심층진단

② 중소기업 ESG 확산지원모델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수준

최대 300만원 심층진단 지원(전액 지원)

지원규모

8개사

지원내용

ESG평가지표 구성, 사전진단 및 평가, ESG진단결과 보고서 작성, 현장실사



혁신의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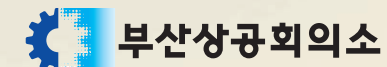
부산경제 혁신의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 5대 현안 해결과 지역기업 혁신성장에
부산상공회의소가 앞장서겠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상공회의소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기업, 신뢰받는 기업

(주)경부공영

전국 방방곡곡 건설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자갈과 모래는
(주)경부공영의 피와 땀이 얼룩져 있는 자연물입니다.
(주)경부공영은 최고의 생산 능력으로 고품질 프리미엄 자갈과 모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